[UCI]I804:24011-200000263878

2013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현대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권 현 아

현대미술 감상 지도방안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 Centering on Secondary Education-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권 현 아

현대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권 현 아

권현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진 원 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iv
ABSTRACT----------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2장 현대미술의 이해 ---------- 4
제1절 현대미술의 개념 ---------- 4
제2절 현대미술의 흐름과 형성배경 ---------- 6

제3장 현대미술 감상 교육 ---------- 9
제1절 미술 감상의 이해 ---------- 9
제2절 현대미술 감상 지도 ---------- 11

제4장 중학교 현대미술 감상 수업의 제안 ---- 19
제1절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 19
제2절 교과서별 감상영역 내용 ---------- 25
제3절 중학생 학습발달 상황 ---------- 29
제4절 현대미술 감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계획서 - 33

제5절 수업 결과 예측 ---------- 70

제5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표 목 차

<표 1>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 21
<표 2>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성취 기준 -- 21
<표 3> 출판사별 교과서 단원내용 분석 ---------- 25
<표 4> 출판사별 감상영역의 현대미술 도판 비율 --------- 28
<표 5> <맹인(The Blind Man)>에 실린 리처드 무트 사건 -- 38
<표 6> 교수·학습 과정안 1 ---------- 49
<표 7> 교수·학습 과정안 1의 참고작품 ---------- 55
<표 8> 교수·학습 과정안 1의 활동지 ---------- 56
<표 9> 교수·학습 과정안 2 ---------- 57
<표 10> 교수·학습 과정안 2의 참고작품 ---------- 63
<표 11> 교수·학습 과정안 2의 활동지 ---------- 64
<표 12> 교수·학습 과정안 3 ---------- 65
<표 13> 교수·학습 과정안 3의 참고 동영상 ---------- 68
<표 14> 교수·학습 과정안 3의 유인물 ---------- 69

그림 목차

<그림1> 마르셀 뒤샹 「샘」---------- 55
<그림2>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55
<그림3> 제프쿤스 「세 개 공의 완전한 평형 탱크」---------- 55
<그림4> 백남준 「TV부처」---------- 63
<그림5> 앤디워홀 「1962마를린 먼로」---------- 63
<그림6> 백남준 「거북이」---------- 63
<그림7> 로이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63
<그림8> 백남준 「다다익선」---------- 63
<그림9> 엔디워홀 「1962코카콜라」---------- 63
<그림10> 「‘그림이 움직여요.’ 키네틱아트의 매력」동영상 캡쳐1 -- 68
<그림11> 「‘그림이 움직여요.’ 키네틱아트의 매력」동영상 캡쳐2 -- 68
<그림12> 「‘그림이 움직여요.’ 키네틱아트의 매력」동영상 캡쳐3 -- 68
<그림13> 「‘그림이 움직여요.’ 키네틱아트의 매력」동영상 캡쳐4 -- 68
<그림14> 「키네틱 아트를 아시나요?」동영상 캡쳐1 ---------- 68
<그림15> 「키네틱 아트를 아시나요?」동영상 캡쳐2 ---------- 68
<그림16> 「키네틱 아트를 아시나요?」동영상 캡쳐3 ---------- 68
<그림17> 「키네틱 아트를 아시나요?」동영상 캡쳐4 ---------- 68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 Centering on Secondary Education-

Kwon, Hyeon-a

Advisor: prof. Jin, Won-jang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Contemporary art refers to art after the World War II, that is, art of the late 20th century. At that time, innovative art movements occurred actively all over Europe, normative definition of art collapsed and artists began to reinterpret art in more expanded atmosphere. Art got out of the traditional style of just pursuing for beauty and artists began to present problems of modern society and contemporary senses of values through their distinctive methods to appreciators. So,

contemporary art is a means to understand our society.

Also,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al means, we have had active cultural exchanges and are entering the era where different cultures coexist. It means that in contemporary societ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ultural values in addition to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Likewise, appreciators have had sensible senses of value on visual culture established through indirect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aspects of society.

Therefore, judging that appreciation of contemporary art should be included in our school education,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appreciation class of contemporary art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 art and predicted its educational effect.

For the appreciation program proposed, the contents involving appreciation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identified and opportunities to approach contemporary art were provided for learners within a frame of the curriculum to meet the needs of our country and society. Such activities have meanings in that they help students to naturally accept and enjoy contemporary art which seems difficult at school environment.

Educational effects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la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as follows: First, students can have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which meet goals and learning process of appreciation area in accordance with the 2009 Revised Art Curriculum. Second, students can establish their sensible senses of value on visual

culture and make a contribution to enhancing competitive power in culture. Third, students can enhanc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as well as their traditional culture by experiencing foreign cultures and ideas indirectly. Fourth, students who have negative attitudes to appreciation can have positive appreciation attitudes through expression of their own ideas and feeling.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술은 인간의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매개로 하여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킴과 더불어 미술도 함께 발전해 왔다.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에 공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활동을 통하여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 필요하다.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네 가지의 하위 목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다. 이를 세부적 영역 중 감상 영역에 적용시켜 보면, 그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미적표현 후 감상을 통해 소통을 하는 것, 미술의 가치를 감상을 통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미술을 생활화하기 가장 좋은 활동이 감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감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미술이 접목되는 경우를 자주 마주친다. 건축물, 길거리 벽화, 광고매체, 산업상품 등 그런데 그것이 현대미술에서 응용된 것 인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교육이 그만큼 현대미술을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실제 초중등 특히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현대 미술의 난해함을 이유로 지도 방법이 실제화 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감상 지도에 있어서

현대 미술의 독창성과 다양성의 수용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2007년 「현대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연구」의 논문 저자 류지영이 자신의 논문 연구의 일환으로 초등 교사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현대 미술 표현활동을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88% 정도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다양한 흥미와 미적체험', '미술 표현력과 창의성 향상'등을 들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61%로 더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작품의 의도나 내용 이해의 문제', '지식과 자료의 부족', '방법 및 관점의 문제'등의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미술 감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술이 현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서서 미술은 더 이상 미적 요소만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현대인의 가치관, 감정 등을 작가만의 표현방법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미술이란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 감상 수업의 방법적 연구의 일환으로써, 그 목적으로는 첫째, 감상자가 현대미술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흥미를 느끼고 미적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둘째, 작품에 드러난 시대와 문화 양식을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미술의 역할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감상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로서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 감상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대 미술의 개념을 알아보고 감상영역의 중요성과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미술이 감상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현대미술의 올바른 감상 방법을 위한 실제 교수법 방안을 연구한다.

제2장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대미술의 흐름과 형성배경을 조사한다. 또한 현대미술이라 불리던 시대에 발생하였던 미술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연구·조사 한다.

제3장은 문헌을 통하여 현대미술 감상 교육을 위해 감상의 개념과 역할 및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고 현대미술이 갖는 특징에 입각하여 현대미술 감상의 교육적 목적과 의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미술 감상 수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은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고, 그 중 감상영역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중학교 수준의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8종을 파악해 보고, 중학교 학습발달 상황 분석을 통하여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제안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제2장 현대미술의 이해

제1절 현대미술의 개념

20세기 초에 즈음하여, 예술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모든 면에서 도전을 받았다. 이 도전 자체, 즉 그 도전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도취감은, 예술가에게는 하나의 생동감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거부와 질문은,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통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작품 속에 전통을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하나의 입장표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정한 혁명에 이르게 되었다. 변화와 갱신(更新)을 위한 반(反)전통적인 정열이 모든 예술을 대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각예술에서 가장 명백했고, 이 정열이 처음으로 유행되어 보다 일반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도 시각예술에서 였다. 회화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은 인상파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는데, 1910년경에는 이미 인상파들조차도 전위파가 아닌 후위에 서게 될 정도로 그 추진력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미술에서 실험은 유일한 가치기준으로 보일 정도로 컸다.

실험은 현대미술의 합리적인 경향과 비합리적인 경향, 양쪽 모두에 걸쳐서 하나의 작업방법이 되었다. 한편에 있어서 실험에 대한 강조와 또 한편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법(비록 이 접근법이 독단적·직관적 출발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의 빈번한 적용은 자연과학의 새롭고 중대한 발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비록 과학적 방법 내지는 접근법이 직접적인 효과 그것만을 가졌는지 또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나 이해를 의미하는지 의문스럽지만, 과학적인 방법 혹은 접근법은 예술에 있어서 상상력의 수많은 출발을 위한 자극제였다.

시대개념과 시대 속에서의 발전개념은 꾸준하게, 짧고 빠르고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분출과 단편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예술품 그 자체의 성격을(개념적인 의미에서) 흔히 선행하면서 조정하고 사전정의를 내렸던 이론이나 관념들을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보는 관점과 개념이 점차 예술 활동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현대미술운동은 본질적으로 「개념적인」것이다: 미술작품들은 그들이 예시(例示)한 개념에 의해 고찰되고 있다. 비평가, 이론가들의 역할은 새로운 예술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할 바 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다양한 운동들이 동시대의 주요 작가들을 꼭 독점적으로 수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만 한다. 그 명백한 예가 피카소일 것이다. 그는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외면하기도 했으며 간단히 초월해버리기도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운동들의 개념까지도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개념들이 동시에 너무나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므로 순전히 개개인 예술가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생각하는 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미술에 대해 생각하기가 힘들다.[1)]

현대미술은 말 그대로 아직 현재진행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현대미술의 시작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현대미술의 시작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마르셀 뒤샹의 등장 전, 후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미국의 예술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로인해 다양한 현대미술의 양상과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예술가의 개념을 작품에 투영하여 표현한다는 것으로 보고, 표현 방법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기법과 장치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미술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마르셀 뒤샹의 '샘'이었다. 남자 소변기를 전시장에 그냥 가져다 놓은 형상이었는데, 타인이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소변기에 불과하였지만 뒤샹은 작가의 개념과 사상이 담겨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술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미술에 대한 개념의 변

1) 니코스 스탠고스, 「현대미술의 개념」, 성완경 등,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7-10.

화를 일깨워 주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학자들에 의해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불려 지게 된 것이다.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본 연구자의 입장은 두 번째 견해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첫 번째 견해의 입장으로 미술을 바라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서 현대미술을 정의내리고 구분하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등장한 다양한 미술들의 구분이 애매모호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사상이나 사조도 시대적으로 구분 짓는 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견해는 현대미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정의 내린 점에서 단순히 시대적으로 구분지은 첫 번째 견해보다는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기준과 범위의 타당성이 높다 라고 생각되어진다.

제2절 현대미술의 흐름과 형성배경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계는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독일군에게 침략당한 여러 나라의 미술가들은 생존이 위태로웠다. 에꼴드 파리의 잔여 세력은 집단이민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부유하고 강력한 양대 세력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었다. 1930년대 초부터 미국, 특히 뉴욕의 미술가들의 작품 생활은 나치의 공포를 피해 날아드는 예술가들의 대이동의 여파를 타고 점차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현대미술은 점점 어떤 면에서는 더 확고하고 흥미 있는 표현의 조류를 촉진,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개별성, 또는 유일무이성이 미술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가들은 이것을 팽개쳐버리고, 공학(工學)에 깊이 빠져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모방하고, 미술작품을 한다기보다는 실험적 제작을 하였다.

아마도 미술가를 가장 논리적으로 정의하려면, 미술가를 실존 철학자의 위치로 보고 미술을 하는 사람을 사회의 나머지 전부에 도전하며, 동시에 일종의 생존의

방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존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술의 역사는 색다른 이즘 ism과 운동의 연속이었고, 이것은 빠른 속도로 차례차례 교체되어 뒤를 이어 나갔다. 추상표현주의에 뒤이어 앗상블라쥬 assemblage, 팝아트 Pop art, 색채회화 colour painting, 옵아트 Op art, 키네틱 아트 Kinetic art, 그리고 미니멀 아트 Minimal art 등 가장 두드러진 것들로 점철돼 나갔다. 미술계를 압도해온 변화의 진폭과 속도는 기본적인 사실 fact 속에 은닉한 채 진행돼 나갔다. 이 모든 운동들이 전전(戰前)에서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재정사(再精査)하고 재평가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추상표현주의는 초현실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고, 앗상블라쥬와 팝아트는 초현실주의를 넘어서서 다다 Dada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옵아트와 키네틱아트는 바우하우스 Bauhaus에 이루어졌던 실험에서 연유한다. 미니멀아트는 다다와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재미있게 조화시킨다.

비록 현대미술이 극단적이고 거의 자포자기적인 개성에서 시작하여 차디찬 비개성 impersonal 적인 것에로 발전해 왔지만, 그 속에는 상호 갈등의 여지가 처음부터 잠재해 있었다. 전후의 작가들은 전전의 오리지널의 내용을 깔보거나 완전히 팽개쳐 버리려 하면서도, 그 형태는 발전시키고 확대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이러한 양식적인 생성은 전전의 원형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미술가는 싫든 좋든 간에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한 예로 전후의 시기에 피카소는 여러 가지 주제를 작품화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주제 변화는 그의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순전히 상업적인 배려에 적응한 이러한 피카소의 예는 현대 미술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규격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극적인 도약으로 전진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현대미술은 '뉴스'거리, 즉 저널리즘 소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에 대한 서적이 범람하게 되었고, 이것들은 이제 대중의 견문을 넓히는 일을 도왔으며, 그리하여 보다 많은 전시회에 대한 구미를 돋우게 했다. 한편 현대미술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국가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 국가는 기간적(基幹的)

후원자가 되었고, 파리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그리고 카셀 도큐멘타전 같은 커다란 국제전은 곧 국가의 명예와 관련되는 대행사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평화적 교전(交戰)의 수단으로서 미술은 스포츠와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미술이 국가주의적 색채로 다분히 위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일반화된 어떤 사회적 효력이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예로써 언뜻 생각나는 것이 팝아트이다. 전후 당시의 회화와 조각은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압력에 대한 거부와 도시문화의 기계화 및 비인간화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다. 팝아트는 이 같은 도시환경이 제공하는 경험에 의해 그것을 형태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진전시켰다. 팝아트는 표현되어 있는 것 못지않게 표현의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소한 이분법 dichotomy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은 정당하다. 그래서 미술가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다루게 되었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의 세계 바로 그것이 그들의 취급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현대미술가가 대중문화 사이에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게 되었고, 시각예술은 점차 대중적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갔다. 그들은 관광기관이 제공하는 미술을 즐기기 위해서 미술관에 몰려드는 종래의 그런 무리와는 달랐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새로운 미술에 주의를 기울였다.[2)]

2) 루시-스미드,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 (서울: 미진사, 1995), p.38~49.

제3장 현대미술 감상 교육

제1절 미술 감상의 이해

1. 미술 감상의 개념

감상이라는 개념은 창작이나 제작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대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의 과정이다. 예술작품의 주된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인데, 감상(鑑賞, appreciation)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감상에는 주로 시각을 활용한 미술 감상 이외에도 청각을 활용한 음악 감상, 영화나 연극, 무용 등과 같이 시청각을 활용한 감상이 있다. 미술 감상은 조형품이나 자연에 대해 그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

감상의 어원을 찾아보면 감상이란 뜻의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 에서 온 용어로 ’appraise', 즉 ①품질, 크기, 무게 등을 ‘평가하다’와 ②‘감정하다’ ‘사정하다’, ‘값을 매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미적 요소를 향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술작품의 의미와 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작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학에서는 예술을 고찰할 때 감상이란 어휘보다는 주로 ‘향수’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친근하게 사용되는 미적 ‘관조’와 ‘정관’ 등의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예술학에서는 감상을 ‘예술 인식’, ‘예술 해석’, ‘예술 관조’, ‘예술 지각’, ‘예술 수용’ 등의 다양한 범주에서 고찰하고 있다. 미학보다는 예술학 쪽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는 ‘감상’이란 용어의 개념과 본질을 밝히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세계미술사전 世界美術辭典』에서는 예술작품의 감각적 형식과 표현 내용의 전체에서 미를 향수하지만 단지 지적·분석적 이해와 개인적인 좋고 싫음의 정서적 반응과는 구별하여 관조와는 달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평가 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철학사전 哲學事典』에는 ‘감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예술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조'와 혼동하기 쉬우나 엄밀히 말하면 관조보다는 가치 판단상의 '감정'과 '비판'이라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3)]

즉, 감상은 사고와 관계없이 주관적인 감정에 기인한 정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감상이 일어나는 순간은 개인적인 감동과 감명이며, 어느 정도 현실에서와는 다른 섬세함과 관심의 미적 체험 순간이므로 사고와는 관련이 없게도 보인다. 실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논리적 지식을 학습할 때에는 분석적인 결과에 의한 이성적 판단과 인식이 필요한데, 감상은 이러한 사고 과정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감상이 사고와 관련 없는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만이 아닌 것은, 감상이란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미적인 내용을 즐기기 이전에 보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과정이므로 이를 정서적인 부분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미술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고해야 하며 가치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감상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술작품이란 작가의 표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감상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감상도 능동적인 미적 창조활동이다.[4)]

2. 미술 감상의 역할과 의의

미술 감상과 비평은 우리 삶 속 곳곳에 내재해 있는 미적인 요소를 찾고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며, 미술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 역사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5)]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교육은 '정서 함양'이니 '심미적 능력 육성'이니 '고상한 취미의 형성' 등 교양 교육 정도로 그 의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3)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주)시공사·시공아트, 2003), p.24~25.
4) 이은적 등,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4), p.244.
5) "ibid., p.251."

와서는 보다 예술 본질적인 입장에서 '미적 지각 능력의 육성(K. Kowalski)[6]' 이라든가 '예술작품이 지닌 언어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의 양성' 또는 '조형적인 가치 규준에 대한 의식의 각성' 등 다양한 이론으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주장하게 되었다.

오스본은 '기능으로서의 감상'을 자세히 논하며 감상 기능skill을 기른다는 것은 '새로운 지각력의 획득'으로 '둔해진 감각의 각성'과 같으며, 감상 기능의 획득은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일'이라고 하였다.[7] 이와 같이 감상의 의의는 인간에 있어 새로운 지각력으로 둔하고 계발되지 못한 감각을 눈뜨게 하고, 결국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계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예술작품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예술작품의 수용자는 작품을 매개로 하여 창작자와 만나서 작가의 가치 세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작품에 대한 추상적 활동 등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수용자 자신의 자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의 지각·감상은 새로운 자기 '깨달음'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이 지니고 있는 기능은 소통적 기능과 계몽·교양적 기능, 그리고 쾌락적 기능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형성으로서의 '교육적 기능'이다.[8]

제2절 현대미술 감상 지도

1. 현대미술 감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

현대미술은 언제나 다양한 변용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미술은 미술을 둘러싼 사회 등 상황 변화에 의해 '현대'와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새롭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것

6) Klaus Kowalski는 독일의 미술교육자로서 「그림분석의 방법 Methoden der Bildanalyse」이란 논문이 있다.
7) H. Osbome, 「미학과 예술론」, 서배식 역 (서울: 대왕사, 1984), p. 15.
8) "박휘락, op. cit., pp.26."

은,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동시대성'을 포함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의식을 시각문화의 고찰을 통해 재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미술의 교육적 의의는 '열린 작품'으로써, '해방 기능을 가지는 교육장치'인 것이다[9]. 이 교육적 기능에서 미술교육을 인식하는 것은 미술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미술품 중심의 감상과는 별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현대미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비추어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시대의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열린 미술작품'을 대하는 '열린 태도'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에코(U. Eco)[10]는 논문 '열린 예술 작품'에서 현대 미술에 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했다. 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의 '현대 미술'에서는 후기구조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졌는데, 단토(A. Danto)[11]는 'The End of Art(예술의 종말)'에서 80년대 이후의 예술을 '역사가 끝난 후의 미술(post-historical-art)'로써, 어떠한 표현도 가능한 상황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반복하는 다원주의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보았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난 세대는 일러스트나 광고,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둘러싸여 성장했으며 현대 미술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근대 이후 예술작품은 생활과 동떨어진 자율성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사회와의 교류를 상실한 순수 미적 예술이 전개되는 가운데 아방가르드가 출현하여 작품의 자율성과 사회적 귀결과의 관계를 폭로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시작된 미술제도의 자기비판에 의해 우리는 과거 미술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사실주의 역시 특정 시대의 주류적 기법 가운데 하나로

---

9) 움베르토 에코, 「기호학이론」, 서우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 178.

10)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철학자, 소설가.
1932년1월5일~, 이탈리아 출생, 학력: 토리노대학교 문학부 학사, 경력: 1973년 제1회 국제기호학 회의 조직, 1971년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기호학 교수.

11) 아서 단토(Arthur Danto) 미국의 미술평론가, 교수.
1924년 1월1일~, 미국 출생, 소속: 컬럼비아대학교 명예교수, 학력: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철학, 수상: 1990년 국립책평론가협회 평론상, 경력: 미국미학학회 회장, 미국찰학학회 회장.

12)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 역 (서울: 미술문화, 2004), p. 148-149.

써 인식된 것이다. 예술은 고정화된 인식의 지평을 여는 것이며, 예술가는 사건/사물의 전체상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의 충격에 의해 감각이 마비되기 전에 그것을 고치는 인간이다. 그러한 혁신이 바로 현대미술에 의해 기대된 역할인 것이다. 현실의 일상적인 감각을 재인식하고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현대미술의 역할은 현대에 있어 더욱 확대되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가보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상자의 의도를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 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의 반응이나 해석이 작가가 의도한 틀을 넘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에서의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운데 하나는 예술가가 이 중요한 변화를 인식한 것이며 이 '열린 작품'의 출현이야 말로 현대 미술을 발전시킨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상'의 행위이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행위이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작가의 의도나 전문가의 의견이 우리자신의 결론보다 더 옳은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권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고를 하며 우리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해석하는 능력은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가는 것이다.[13]

2. 현대미술 감상 교육의 특성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14]는 '눈과 정신'이라는 그의 최후의 저작에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작품에서의 표현은 연기하는 사람의 표현에 의해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표현하며 또한 그 존재를 어필한다. 메를로퐁티는

---

13) 류지영, "현대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연구" 『미술교육연구 논총』, 21호, No.- (2007), pp.83~84, 90~91.

14)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 철학자.
1908년 3월14일~1961년 5월4일, 프랑스 출생, 학력: 파리고등사범학교 철학 박사, 경력: 1952~1961 콜레주 드 프랑스 학장교수, 1949~1952 프랑스 파리소르본대학교 심리학 교수, 1945~1948 프랑스리옹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로 연극을 중심으로 관객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대미술 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도 있으나 현대미술을 통해 감상자에게 '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켜 작품과 관객의 일치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낸다. 한 순간 작품의 세계 전부가 관객의 세계와 부딪치고 합치되면서 존재하게 되고 또한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살아있는 부딪침을 요구하는 것이다.

철학자이자 이론가인 에코는 '열린 예술작품'에서 1940년대 이후의 예술 발전에 대해 분석을 시도 하였다. 에코는 어는 작품에도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방성, 즉 '열림'이 있다고 보았다. 예술은 지극히 다양한 감상자에 의한, 어떠한 해석의 형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열려져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예술의 '개방성'은 예술의 복수성과 다의미성 그리고 해석과 반응에 의한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에코가 주장하는 열린 작품은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함유한 채 발생하는 예술로써 사회적인 참여가 가능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관객과 소통되는 방식은 대단히 개방적이다. 기존의 작품을 해석하는 규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소통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작품의 의미는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의 폭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에코의 열림의 개념은 현대 미술에 있어서 양식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현대예술의 언어에 의해 취미와 미적 구조를 넘어 보다 광대한 맥락과 관련되며 현대인에게 회복과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감상자의 창조적 행위와 연결되는, 가장 풍부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며 새롭고 더 유연한 방식으로 예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15]

3. 현대미술 감상 지도 방법

감상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감상하는 사람의 적극적이고

15) "ibid., p. 91~92."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주체가 대상에 관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상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능동적인 내면화 과정이라고 한다. 감상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모두 다르게 느끼고 생각함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한다.[16] 같은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이 다름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감상이 미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작품에서 작가의 정신성,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등 삶에 대한 철학과 미의식을 보고 느껴야만 한다. 또한 작품 그 자체의 조형성과 더불어 아름다움 자체를 향수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 미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의 시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17]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어떤 형식과 법칙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내면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작품 감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들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한 문헌의 내용을 빌려 현대 미술 감상의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스스로 작품에 말을 걸어보라. 대화하는 데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으로부터 생각하라. 대화는 가능하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보통 대상과 보는 자신이 합일되는 감상이 좋은 감상이라 하는데, 이는 바라보는 사람이 정관(正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게 되고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을

16) 이은적 등,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4), p.245.
17) 임정기 등,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6), p.269.

보고 듣게 되는 것이다.

둘째, 언어를 적극 활용하라. 작품의 내용을 언어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언어는 대상의 본질을 직관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고 언어로 자신을 표현한다. 언어는 분석을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개념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술 감상에는 정보와 지식의 제공으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현대미술은 작가 개인의 자의식이 심화된 것이 많은 관계로 난해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작품의 이해에도 큰 도움을 준다. 작품에 말을 걸어보고 그것을 언어화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지견(知見)을 세워보는 것이다.

셋째, 자신감을 갖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보라. 작품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바라보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서 감상하도록 한다. 미술의 좋은 점은 다원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넷째, 작가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보라. 대부분의 작품들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다봄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작가는 고심하면서 물질과 대화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때로는 단호한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작품을 완성해 갔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작품과 대화를 할 때 보다 깊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첫 느낌, 첫인상이 중요하다. 사람간의 만남에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작품의 첫인상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는 미술작품 감상에 있어 논리적, 언어적 접근보다 직관에 의한 미적 판단이 우선함을 뜻한다. 첫 느낌을 잘 갖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나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한다. 즉 깨어 있는 명료한 의식으로 대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명경지수가 굴절 없이 대상의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 놓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의식도 상념이 사라진 고요하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는 대상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 밝히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작가나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는 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을 준

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글, 작품에 관한 글, 미술사에 대한 지식 등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언어를 통한 개념적 이해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올바른 의미의 감상은 이러한 지적 감상의 방법에서 벗어나 작품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작품에서 미적 특성을 보고 느끼며 미적 가치를 발견하여 판단, 평가하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미적 감상이다.

작품을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를 보거나 들었을 때 감상자에게는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이미지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갖게 된다. 잘 본다는 것은 그러한 지식에 의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다가오는 직관이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는 것은 아는 것의 확인 과정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작품 감상이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이다.

작품 감상에서 언어적 이해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작품의 명제나 이름을 통해 감상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지적 감상은 미적 감상에 이르는 예비적 단계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감상교육을 위해서는 좌뇌와 우뇌가 서로 보완을 하는 통합적 활동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교하여 보라. 작가나 시대, 민족이나 나라를 달리하여 비교하여 보면 하나만 보았을 때에 비해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많다. 작품 감상이란 궁극에 가서 미적 판단으로 귀결되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형성이나 개별 야식의 특성 등 여러 가지 미적 요소를 찾아내거나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것이다. 비교를 통한 감상은 보다 분명한 미적 경험의 길인 것이다.

여덟째, 작품의 생명력을 찾아보라. 좋은 작품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내재되어 있다. 미술사에서 명품, 명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불멸의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모든 작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깊은 고뇌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주는 감동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 생명력은 작품의 조형성이나 조형요소, 형식 등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감상을 통하여 그것을 찾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홉째,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라. 작품을 제작하거나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구속도 없는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작품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조형 형식과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육안으로 분석되거나 관찰만으로 잡혀지지 않는다. 심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미술관은 거장들이 갇혀 스스로를 토론의 대상으로 드러내 놓는 토론장이다. 바라보는 사람은 토론에 참여하고 상상력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한다. 특히 유물이나 유적은 미술과 연관된 여러 학문적 성과를 종적, 횡적으로 연계시켜보고, 더불어 상상력을 동원해 복원해보아야 한다.[18]

18) "ibid., p.269~271."

제4장 중학교 현대미술 감상 수업의 제안

중등교육에서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감상 지도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제1절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윙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중학교)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

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3. 미술과목 목표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체계

<표 1>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영역	중학교 1~3학년
체험	·지각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소통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표현	·주제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표현 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감상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미술 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나. 성취 기준

(1) 학교 급별 성취 기준-중학교

①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에 참여한다.

② 표현 활동의 탐색과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③ 미술의 의미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2) 감상 영역의 성취 기준

<표 2>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성취 기준

	감상
①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시대별 표현 양식, 미술 사조, 배경 요인 등을 조사하고 미술의 변천 과정을 통해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다.	(활동의 예) -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시대별 표현 양식, 미술 사조, 배경 요인 등을 조사하고 변천과정을 이해한다. -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 사회의 미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전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기 ·미술 작품과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여 각 나라의 전통 미술 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활동의 예)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 미술 문화가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다. - 미술 문화 유산이 보존·계승된 사례를 조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② 미술 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역사,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한다. (활동의 예) - 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한다. - 미술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토론한다.
	비평 요소와 기준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미술 작품에 대한 비평 요소와 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활동의 예) - 형식, 주제, 도상, 역사적 배경,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비평 요소와 기준을 이해한다. - 미학적 용어와 개념, 미술사적 지식을 활용하여 감상문을 작성한다.
	관람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전시회를 계획하기 ·미술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의 전시회를 계획한다. (활동의 예)

	- 전시 의도와 방법에 따른 관람자의 다양한 역할에 관하여 알아본다. - 주제를 정하여 학급 전시회를 계획한다.

5.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1)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2) 학습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 군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3) 학습 계획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4)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수업의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수성, 행상, 계절, 학생 수, 시설 및 용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

(1)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한다.

(2)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3)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과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4) 정보 통신 기술(ICT)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5)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되도록 미술 활동의 각 영역에 적합한 시설 및 미술재료와 용구를 구비하여 활용한다.

다. 내용 영역별 지도 - 감상

(1)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2)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사회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게 한다.

(3) 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4) 미술 용어와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글쓰기, 발표 및 토론 등에 활용한다.

(5) 미술사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다루어질 미술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7)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8)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9)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감상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19]

본 연구가 감상에 관한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만큼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

1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별책1], [별책3], [별책13], http://www.mest.go.kr/

내용 중 감상의 영역만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2013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되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현대미술 감상의 효과적 수업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교과서별 감상영역의 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감상영역의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참고의 대상으로 현행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8종을 모아 감상영역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미술교과서의 출판사별 감상영역의 내용과 현대미술의 도판 비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3> 출판사별 교과서 단원 내용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주)교학사	보고 느끼는 즐거움	작품 감상을 통해 미적 가치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미술의 흐름	미술 작품의 시대별, 지역별 특징을 이해한다.
	미술 작품 감상	미술 작품의 주제와 특징,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고,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
	미술과 문화	전통 미술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본다. 지역 문화재를 찾아보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안다.
교학 연구사	인물로 본 서양 미술의 흐름	서양 미술에 나타난 인물 표현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안다.
	자연을 담은 건축과 조경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감상을 통해 건축 양식의 특징과 조경을 이해한다.

	재료로 살펴본 미술의 역사	미술사에서 작품에 변화를 준 재료를 살펴보고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알아본다.
	디자인의 흐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의 흐름과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이해한다.
	미술이 있는 공간	미술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아시아의 미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아시아 미술의 시대별 흐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전통 회화의 종류	전통 회화의 종류에 대해 알고 감상한다.
두산동아	감상의 즐거움	작품의 주제 및 표현 방법을 알고 감상해 본다.
	박물관, 미술관 둘러보기	박물관과 미술관, 작가의 화실이나 작업장에 전시된 미술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을 알아본다. 미술품 관람 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고 비평해 본다.
	눈으로 보는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된 목적을 이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종류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	우리나라 미술 작품과 동양, 서양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각 나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주)미래엔	내가 좋아하는 미술	미술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해 본다.
	축제가 좋아	축제와 지역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해 본다.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	우리나라 미술과 동양,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주요 미술품을 알아본다.

미진사	감상의 즐거움	미술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친근감을 느껴 본다.
	미술사 여행	우리나라와 동양, 서양의 여러 나라의 미술에 대해 알아본다.
	감상과 문화 읽기	이미지 속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이해한다.
일진사	미술 작품	감상의 의미와 방법을 알아보고 미술가와 작품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미술 문화	전통문화와 미술을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를 찾아본다.
(주)지학사	미술과 우리 문화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한다.
	미술 작품과의 만남	미술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본다.
지학사	알고 싶은 미술	생활 속에서 체험과 감상을 통하여 미술을 이해한다.
	미술의 구조	미술이 지닌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전통 미술의 창조적 계승	전통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갖는다.
	미술을 둘러싼 수수께끼	미술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배경을 통하여 새로운 미술 개념을 이해한다.
	살아 있는 미술관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미술의 흐름	시대적,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미술 문화	세계 여러 지역의 미술 문화를 이해한다.

8종 교과서의 감상영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출판사별로 단원의 구성이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8종 교과서 모두 우리나라와 동양, 서양 미술의 시대별, 지역별 양식을 살피고 미술을 이해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품에서 드러나

는 역사의 흔적을 살피고 그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여 사회적으로 미술의 역할과 의의를 찾고 있었다. 또한 전통미술 감상을 통해 문화 정체성 확립을 돕고 있었다.

출판사마다 특별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두산동아는 우리나라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을 보기 쉽게 나열하여 각 비엔날레마다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주)미래엔과 일진사, (주)지학사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지역 문화 행사를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예술이라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학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그림에 숨겨져 있던 당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여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표 4> 출판사별 감상영역의 현대미술 도판 비율

구분	(주)교학사	교학연구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미진사	일진사	(주)지학사	지학사	전체평균
현대미술 도판/ 전체도판	11/ 125	29/ 116	6/ 103	23/ 177	9/80	10/ 95	26/ 149	14/ 121	16/ 120.7
현대미술 도판 비율 (%)	8.8	25	5.8	12.9	11.2	10.5	16.7	11.57	13.2

8종 출판사별 교과서의 감상영역에서 도판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주)지학사이고 가장 적은 출판사는 미진사이다. 그 중 현대미술 도판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교학연구사이고 가장 적은 출판사는 두산동아 이다.

감상영역에 제한을 두고 보았을 때 현대미술 도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2%로 감상을 위해 우리나라와 동양, 서양 미술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교과서의 구성상 대체적으로 적당한 비율로 현대미술의 도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현대미술 감상 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2007년 「현대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연구」의

논문 저자 류지영의 논문을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현대 미술 표현활동을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88% 정도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61%로 더 많았다고 하였다.[20] 효과적인 현대미술 감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제3절 중학생 학습발달 상황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했던 아동기로부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성장해 나가며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과도기적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양적·질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는 이 시기 나름대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각 개인에 따라 독자적인 발달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해당 연령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21]

1. 인지적 발달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기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은 불안 갈등, 고민 등을 가득 찬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의 인지적 기능은 아동기에도 발달하지만 청소년기에 와서 양적인 발달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점을 이룬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해

20) 류지영, op. cit., pp. 84.
21) 박현의,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1.

가 가능하였던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사고의 발달에 따라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형성하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 발달적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청소년기 특유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인지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사고와 정확히 구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22]

어린이의 미술 표현은 일반적 발달단계를 거친다. 어린이의 미술표현은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미술 교육자나 심리학자들이 발달을 연구하여 단계화하고 있다.[23]

대표적인 발달단계는 로웬펠드(Voctor Lowenfeld)[24]의 견해로 미술의 발달단계를 난화기(2~4세), 전도식기(5~7세), 도식기(7~9세), 또래집단기(9~12세), 의사실기(12~14세), 결정기(14~17세)의 6단계로 나누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에서는 평면표현의 발달단계를 유희적 난화기(4세 이하), 탐색적 상징기(4~6세), 분화적 상징기(6~9세), 형태적 사실기(9~12세), 공간적 사실기(12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입체표현의 발달과정은 탐색적 유희기(4세 이하), 평면적 상징기(4~8세), 입체적 탐색기(8~10세), 입체적 사실기(10~12세), 공간적 사실기(12세 이상)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피아제(Jean Piaget)[25]는 정신 발달단계를 감각 운동적 단계(0~6세), 구체적 사고의 단계(7~11세), 형식적 논리조작의 단계(12세 이상)로 나눈다.[26] 이 중 중학교 3년 과정에 속하는 만 13세~15세의 청소년은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해당한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는

22) 최동령,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청구 논문, 2005), pp.5-7.
23)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24) 1903년 독일 출생, 1946년 미국 귀하, 1939년 버지니아 햄프턴 기관 미술작업장 교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미술교육과 학과장, 사상: 인종차별 반대, 현대적 흑인미술 발전시킴, 맨하탄의 박물관에 대학미술로는 처음으로 전시회 엶, 사람들에게 미치는 미술의 영향과 문화적 공헌을 깨닫게 함.
25) 1896년8월~1980년9월16일, 스위스의 철학자, 자연과학자, 발달심리학자,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이론과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인 "발생적 인식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5년 제네바에 발생적 인식론 국제 센터를 창립했고, 1980년까지 지도적 위치를 맡았다.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는 피아제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위대한 선구자"라고 했다.
26) 박은현, "제7차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연계성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3~14.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추상적 사고란 융통성 있는 사고, 효율적인 사고, 복잡한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직면한 문제 사태에서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일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27]

2. 미적표현 발달

로웬펠드,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피아제가 제시한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웬펠드는 이 시기를 결정기(13~17세)로 보고 예술적 표현기로서 자기의 개성을 발견하고 의사에 따라 대상을 탐구하고 변화시켜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조적 표현이 점차 줄어들고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부터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단계로도 보았다. 즉, 이 시기는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표현유형이 객관적·인식적 표현이 지배적인 시각형, 주관적·감정적 표현을 주로 하는 촉각형, 두 가지 표현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중간형의 3가지 표현유형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에서는 이 시기를 공간적 사실기(12세 이상)로 구분하고 표현하려는 주제를 선택하고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또한 대상과 공간의 입체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시기로 자아인식 능력과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공간에서의 크기나 색채, 명암, 원근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그러한 인식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적 공간표현이 잘되면 미술에 흥미를 보이고 그렇지 못하면 흥미를 상실하게 되는 시기이다.

피아제는 이 시기를 형식적 논리조작의 단계(12세 이상)로 구분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처음으로 논리적 사고를 시작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미술을 바라보는 시기이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미술을 감상하

27) 김청자 외, 「교육심리학」, (동문사, 2004), p.58-88.

고 비평한다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이며, 성장 후 구체화된 사고를 위한 훈련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에서 감상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28]

이상의 이론과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생들의 미술표현의 중요한 특징은 개성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에 따라 표현 양식이 달라지므로 미술교육에 있어 교사는 학생들의 표현 유형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표현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표현의 효과를 강조하여 표현 의욕의 신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자기와 다른 유익한 견해를 즐겨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29]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한 감정과 정서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연대순의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토론과 발표 같은 다양한 미술 작품들, 특히 창의적인 미술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이 좋다.[30] 그리고 미술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기법이나 표현 방식을 강조하는 내용보다는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자의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표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의 구성이 요구된다.[31]

---

28) 윤병인, "교과서분석을 통한 미술과 감상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p.13.
29) 김춘일, 앞의 책, 교육과학사, 2002.
30) 로웬펠드,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역, (미진사, 1993) pp.315~319.
31) 하란희,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감상영역 비교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p.30~32.

제4절 현대미술 감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계획서

1. 지도방향 및 목적

중학교 미술과 감상 수업에 있어서 현대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열린 태도'의 감상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의 의미와 아이디어, 감상자가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동시대성'을 포함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의식을 시각문화의 고찰을 통해 재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2]

2009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의 전통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통 미술과 더불어 현대 미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비추어 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시대의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열린 미술작품'을 대하는 '열린 태도'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과정 중 감상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열린 태도'의 감상방법의 세 가지 감상수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지도계획

2009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과정 중 감상영역의 교수·학습방법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감상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9개정교육과정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 중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총 9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 교육과정 내용영역별 지도 내용 중 감상영역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여섯 번째의 내용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감상

32) 류지영, op. cit,, p84.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는 시각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 작품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도구로 현대미술 감상을 위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즉, 시대적 배경,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사연, 작가의 감정 등 당시에 일어난 사실적 요소를 가미하여 감상지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설명하고, ‘마르셀 뒤샹’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감상 지도하고자 한다. 전통회화와 현대회화의 정확한 시대적 분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마르셀 뒤샹’은 현대미술로의 개념의 전환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한 작가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세 번째, ‘작품의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라는 부분에 입각하여 현대 미술의 작가 중 팝아트의 선두주자인 ‘앤디워홀’과 비디오 아트의 선두주자인 ‘백남준’을 비교하여 감상 지도하고자 하였다. 두 작가는 팝아트와 비디오 아트라는 부분에서 현대미술의 다른 장르에서 활동한 작가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를 지닌 한국의 작가와 다른 민족의 정서를 지닌 외국작가라는 점에서 비교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비록 ‘백남준’이 외국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지만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는 작품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앤디워홀’도 1960년대에 미국의 문화와 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팝아트라는 장르가 본래 미국의 도시 환경을 포착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구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작가와 외국작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보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점을 비교 감상지도 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이는 미술교육이 학교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는

지역 사회의 문화기반 시설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시각으로,[33] 교육제도에서 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미술 다양한 장르 중에서 미술관 감상 지도에 필요한 장르가 있다. '키네틱 아트' 인데, <현대미술 용어 사전>에 따르면 키네틱 아트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또한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미술이라 설명되어 있다. 쉽게 말해 '움직이는 조각'으로 보면 되는데, 그 특성에 따라 스스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관람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운동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나뉜다. 이 때문에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그래서 '키네틱 아트'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직접 미술관 현장 방문을 통한 감상이 필요하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가보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상자의 의도를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 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의 반응이나 해석이 작가가 의도한 틀을 넘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에서의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운데 하나는 예술가가 이 중요한 변화를 인식한 것이며 이 '열린 작품'의 출현이야 말로 현대 미술을 발전시킨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키네틱 아트'는 현대미술의 큰 특징인 '소통'을 강조하는 장르로 '열린 마음'의 적극적인 감상 태도를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키네틱 아트는 다다이즘과 미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스스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관람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운동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나뉜다.

3. 학습 단원의 개관

가.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

'마르셀 뒤샹'

◇미술교과 대단원: 감상

33) 김형숙, 「미술교육, 사회와 만나다」, (교육과학사, 2010), p.134.

◇소단원: 현대미술 감상

'마르셀 뒤샹'의 등장과 작품「샘」에 관련된 일화를 통한 현대미술 감상

◇지도할 과제: '마르셀 뒤샹'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레디메이드' 뜻을 이해하고 직접 작품 활동을 해본다.

(1) 단원 설정의 이유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내용영역의 첫 번째 내용에 준하여 학습자가 현대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셀 뒤샹'은 전통미술에서 현대미술로의 전환에 있어 큰 역할을 한 작가이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뒤샹이라는 작가 연구와 더불어 그 작가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작품 감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뒤샹의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하고, 「샘」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기까지의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학습자는 '레디메이드'의 의미를 익혀 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한다.

(2) 학습목표

☞'마르셀 뒤샹'의 여러 작품을 감상하고 '레디메이드'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레디메이드' 기법을 활용할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3) 활동 과정

작품 관찰 및 감상 활동 ⇒ 일화 소개 및 이해 활동 ⇒ 표현활동

(4) 준비물

<교사>: '마르셀 뒤샹'의 예시작품, 활동지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5) 학습내용 및 활동

<감상 및 이해 활동>

19c 이후, 근대인들은 점점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진보(progress)와 변혁(revolution)의 대표적인 형태처럼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로(發露)는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사상'으로 나타났으며, 미술세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학적 가치체계를 한 순간에 봉쇄시켜버리는 '소변기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변혁의 시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안하고 암울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시기에 미술가들이 취할 수 있는 미학적 태도 또한 불안하고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여 당시 미술가들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과거의 미학적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고 파괴하는데 집중되었다. 실제로 변화와 진보를 갈구하던 혁명의 시기에는 과거는 오직 극복의 대상일 뿐이며,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모든 가치체계의 파괴를 의미했다.

비록 소변기 사건이 긴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등장한 긴박한 사회적 실천들 중의 하나였지만, 오늘날의 미술사는 그것을 '현대미술'의 단초를 마련한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혁명적'이라는 것은 르네상스시대 이래로 이어져 오던 미술개념의 전통이 소변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단절(discontinuity)'되어 버린 것을 의미한다.[34]

-리처드 무트 사건 (The Richard Mutt Case)

1915년 이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던 마르셀 뒤샹은 자신이 회원으로 속해 있던 진보적인 앵데팡당미술가협회 전시에 1917년 리처드 무트라는 가명으로 자기 소변기를 출품했다. 예상했던 바대로 전시 조직 위원회는 "결코 미술 작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점잖지 못한' 물건의 전시를 거부했다. 그 결과 뒤샹은 협회를 탈퇴했고 여자 친구였던 비어트리스 우드에게 자신들이 발행한 잡지 <맹인

34) 하용석, 「현대미술이 난해한 까닭은」, (도서출판미공, 2005), p26~29.

(The Blind Man)>에 실랄한 성명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과감히 맞섰다.[35]

<표 5 > <맹인(The Blind Man)>에 실린 리처드 무트 사건

<맹인(The Blind Man)>에 실린 내용
리처드 무트 사건
그들은 6달러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고 했다. 리처드 무트 씨는 소변기를 출품했다. 그러나 아무런 의논도 없이 그것은 치워져 버렸고 전시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트 씨의 소변기가 거부된 이유가 무엇일까? 1.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도덕하며, 저속하다고 주장했다. 2.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표절에 불과할 뿐이며, 단지 하나의 배관용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욕조가 부도덕하다고 한다면 턱없이 여겨지듯이 무트 씨의 소변기도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관기구를 파는 상점의 진열대에서 누구든지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변기가)무트 씨의 손에 의해서 직접 제작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상의 생활용품을 선택하여 거기에다가 새로운 타이틀을 붙이고,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창출되어진 관점에 의해 (그 배관기구가 가지고 있던) 실용적 의미를 소멸시키고자 소변기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소변기에 대하여 표절이니 저속하다느니 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짓이다. (보라!) 미국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미술작품들을 거론하자면 배관기구와 교량들뿐이지 않은가?

소변기 사건은 그 후 미국독립미술가협회(American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가 1917년 4월에 개최했던 독립전(The Independents)의 제 1회 전시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술세계에 알려졌다. 글들이 만든 전시의 성격은 당시의 뉴욕에서는 매우 과격하고 실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말했다 - 이 전시는 “심사도 없고, 상도 없다(No jury, no prize.)"고 -. 그리고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시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즉, ”아무나 참여하라! 어떤 작품을 출품해도 좋다! 자유뿐이다!“ -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협회에서 표방하는 전시회의 모토(motto)였다.[36]

35) 다니엘 마르조나 지음, 「개념미술」, 김보라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8), p.11.
36) 하용석, 「현대미술이 난해한 까닭은」, (도서출판미공, 2005), p30, 39, 41.

-레디메이드(Ready-made)

‘기성품’을 의미하나 모던아트에서는 오브제의 장르 중 하나.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그 최초의 목적을 떠나 별개의 의미를 갖게 한 것. 마르셀 뒤샹이 변기, 술병걸이, 자전거 바퀴, 삽 등을 예술품으로 제출한 데서 시발한다. 자연물이나 미개인의 오브제 등과 다른 점은, 이것은 기계문명에 의해 양산되는 제품으로서 거기에는 일품 제작의 수공품인 예술에 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음과 동시에, 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길이 암시되어 있다. 뒤샹은 이것을 ‘예술작품의 비인간화’, ‘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라고 부르고 있다. 전후의 폐물예술(정크 아트)과 아상블라주 및 팝 아트의 잠재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37]

<표현활동>

학생들이 레디메이드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표현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미술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미술이 갖는 의미를 찾아가며 미적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정체성의 확립에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레디메이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 한다.

(6) 지도상의 유의점

☞ 예시 작품 감상 시에는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해당 학년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직관적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취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감상과 발상을 위하여 교사는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지양한다.

(7) 평가

37)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문제>

: 마르셀 뒤샹이 「샘」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은 실제 소변기였다. 이렇듯 예술가의 선택으로 예술작품이 된 기성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레디메이드가 탄생, 발전하게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가?

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백남준'과 '앤디워홀'

◇미술교과 대단원: 감상

◇소단원: 백남준과 앤디워홀의 미술작품 비교를 통한 작품 감상

비디오 아트의 선두주자 백남준과 팝아트의 선두주자 앤디워홀의 작품에 담긴 내용적 측면에 대한 비교 감상

◇지도할 과제: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의 작품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팝아트 작가 앤디워홀의 작품에 담긴 다른 문화의 정서를 비교해 보고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원 설정 이유

2009개정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내용영역의 세 번째 지도 내용은 작품의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현대미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양한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해서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두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하고 비교해 본다. 작가는 문화, 역사, 종교, 환경 등에 따른 영향으로 그 만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구성해 낸다. 그러므로 두 작가의 작품을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 감상하여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를 다양한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2) 학습목표

☞ 비디오아트와 팝아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술작품 감상을 통하여 미술품에 내재된 사회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을 공감,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활동 과정

작품 관찰 및 감상 활동 ⇒ 토론 및 이해 활동 ⇒ 감상 및 비평활동

(4) 준비물

<교사>: 백남준과 앤디워홀의 작품비교를 위한 예시작품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5) 학습내용 및 활동

<감상 및 이해활동>

(백남준)

백남준은 비평가들로부터 조각가, 행위예술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심지어 그를 '환상세계의 여행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비평가들은 백남준이 1960년대 초반 이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작가로서 데뷔하는 시기에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주로 작곡과 퍼포먼스 등 네오다다이즘적인 운동을 벌였다. 1967년 뉴욕에서 선보인 〈오페라 섹스트로닉〉을 공연할 때 첼로 연주자는 상반신을 완전히 벗은 채 공연했다. 백남준은 이 작품으로 인해 '대중의 품위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예술'이라는 죄목으로 즉각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술적 검열의 한계를 시험한 것으로 결국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TV부처’는 68년 백남준이 미국 뉴욕의 보니노화랑에서 가진 네 번째 개인전에

처음으로 출품되었다. 처음에는 부처를 텔레비전을 보는 단순한 관객으로 등장시킬 예정이었으나 부처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카메라에 사로잡힌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사냥하는 리얼타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우주 속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이른바 아인슈타인의 질량불변의 법칙을 토대로 백남준의 텔레비전 부처는 태어났다. 부처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의 문제가 작품의 다양한 공간 환경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읽히게 하였다. 커다란 흙더미 속에 모니터를 묻어놓고 카메라가 부처를 비치는 순간 부처의 이미지는 대지 속의 조그만 눈처럼 보인다,

백남준이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스트라는 점은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서구, 전통과 현대의 구분을 초월하는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그의 경우 글로벌 비전은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도교, 젠사상, 주역 등 동양사상에 비견될 비고정성 개념을 통해 생 예술의 비전을 제시한 존 케이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성찰하는 계기를 맞는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으로 그는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 미학에 도전, 예술의 사회적 역할, 타자와 주변문화의 목소리에 대해 주목하는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현대적 정치예술을 실천한다.

백남준의 글로벌 비전은 무엇보다 동서의 공동존재와 협력을 개발할 공생 모델의 창안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견지는 그가 서구 매체인 해프닝이나 비디오아트에 주역, 윤회, 젠사상, 무위, 샤머니즘 등, 아시아의 사상, 정신을 녹여낸 사실에서 입증되는데, 예컨대 실시간 폐쇄회로 작업인 〈TV부처〉 시리즈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를 연결시키는 개념적, 은유적 상황을 창출한다. 백남준의 예술적 공헌은 바로 동양철학이나 한국 전통사상을 서구 아방가르드 정신과 결합하여 현대미술 언어로 조형화하면서 글로벌한 고유양식을 구축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한국의 “백남준”에서 세계적인 “남준팩”이 된 이면에는 이렇듯 한국성, 아시아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함께 그것을 작품에 녹여 내는 미학적, 조형적 탐구

의지가 깔려 있었다. 어려서 고국을 떠나 홍콩, 일본,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고 국제적인 예술 활동으로 세계인이 된 그에게 이주, 이산, 유랑 등 탈식민주의 이슈와 함께 민족,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삶, 예술과 분리될 수 없는 의식의 한 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가운데 특히 샤머니즘은, 백남준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영향을 끼친 중요한 문화적 인자이다. 그는 우주와 인간, 자연과 인간, 이승과 저승의 소통과 조화를 신봉하는 샤머니즘적 사유방식에 대한 참조, 그 문화적 기능과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통해 대중소통, 관객참여, 나아가 전 지구적 문화교류를 추구하는 상호성의 예술을 개념화한 것이다.[38]

(앤디워홀)

1928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슬로바키아(당시는 체코) 이민 가정으로 위로 두 명의 형이 있었고, 부모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 자신도 평생 교회를 다녔다. 본래 그의 집안 성씨는 바르홀라(Varchola)였으나, 영어식인 워홀로 바꾸었다. 육체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1942년 앤디가 14세 때 사망 후 어머니 줄리아가 혼자 아들들을 키운다. 앤디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카네기 공과 대학(현재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상업 예술을 전공한다. 1949년 졸업을 하면서 뉴욕 시로 이주하여 잡지 삽화와 광고 제작으로 명성을 쌓았다.

워홀의 작품세계는 대부분 '미국의 물질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는 돈, 달러 기호, 식품, 잡화, 여자 구두, 유명인, 신문 스크랩 등을 그렸다. 그에게 이런 주제들은 미국 문화의 가치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언제나 코카콜라다. 대통령이 마시는 코카콜라는 내가 마시는 코카콜라와 같은 그 콜라다". 그는 대중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미지를 이용해 20세기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했다.

화려한 색채 같은 도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하

38) cafe.daum.net/mpo/5P21/3252 문화예술연구단체 현대사진포럼

여, 마릴린 먼로나 앨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스타의 이미지와 상품, 달러 기호 등 미국 사회에 유포하는 경박한 기호를 작품화했다. 고전 예술과 모더니즘 등과는 달리 그 도안은 풍부한 미국 사회를 구현하는 명쾌한 팝아트, 상업 회화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대중문화'가 가지는 대량소비가 아닌 인류, 진부, 공허함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성을 구한 그의 작품은 그 자신이나 대중이 매일 접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와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사고와 죽음의 이미지도 그려졌다.

그는 자신에 대해 물었을 때, "나를 알고 싶다면 작품의 표면만 봐 주세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철저하게 "예술가의 내면"을 없애고 표면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명한 것에 애정을 숨기지 않고, 스타와 정치인이나 사고, 패션 제품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으며, 그것이 유명하고 또 내 자신도 그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 자신이 미국의 유명인이 되고 나서도 걸음을 흩트리지 않고, 유명인을 연출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유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 제작한 작품들은 대량생산되어 번호가 매겨지는, 미국 문화의 어떤 속성, 특히 넘쳐나는 상업품과 유명인 도상에 대한 논평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캠벨 수프 깡통 그림은 상품화에 대한 점점 더 늘어나는 무관심함에 대한 언급이며, 반면 마를린 먼로의 이미지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천박함에 대한 언급이다.

<비평 및 감상활동>

조별로 작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감상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표현 형태에서 드러나는 실마리를 토대로 하여 두 작품에서 느낄 있는 미감이나 미적 특징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시대적 사상이나 재료적 차이로 인하여 작품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면 작품의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 개개인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을 보고 공감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감상지 작성이 끝나면,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하여 작성한 글을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같은 작품을 감

상하고 난 후, 각각의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도상의 유의점

☞ 예시 작품 감상 시에는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해당 학년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직관적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취한다.

☞ 사실적 정보의 전달을 중심으로 한 개념학습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교의 대상을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문제>

: 앤디워홀이 주로 사용한 미술 기법은 무엇이며 이 기법은 특징은 무엇인가?

: 백남준은 미술의 어떤 장르의 작가인가?

다. 미술관에서의 감상지도 '키네틱 아트'

◇미술교과 대단원: 감상

◇소단원: 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

미술관 감상을 위한 선수학습으로 미술관에서의 감상 방법과 애티켓 배우기, 키네틱 아트의 성격을 이해하기

◇지도할 과제: 미술관에서의 감상 방법과 애티켓에 대해 알아보고 키네틱 아트라는 장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여 본다.

(1) 단원 설정 이유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여섯 번째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이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유물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실물(authenticthings) 자료들을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직접 접촉하게 하는 '전시'는 박물관·미술관의 관객들 간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물과 관객과의 직접 교류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제도나 문화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교육적 효과이다.[39]

현대미술 감상 수업으로 본 연구자는 이번 교수·학습 지도안에 키네틱 아트 감상 수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키네틱 아트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또한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미술이다. 쉽게 말해 '움직이는 조각'으로 보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관람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운동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나뉜다. 키네틱 아트 작품 완성을 위해서 관객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키네틱 아트 작품 감상은 직접 오감을 사용하여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묘미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2) 학습목표

☞ 키네틱 아트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술관에서의 애티켓을 익히고 설명할 있다.

(3) 활동과정

작품 관찰 및 감상 활동 ⇒ 참여 및 이해 활동 ⇒ 감상 및 비평 활동

(4) 준비물

<교사>: 키네틱 아트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위한 예시 작품, 감상지

<학생>: 필기도구

39) 김형숙, 「미술교육, 사회와 만나다」, (교육과학사, 2010), p.186~188.

(5) 학습내용 및 활동

<감상 및 이해 활동>

(키네틱 아트)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말한다. 시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옵 아트와 달리,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 따라서 작품은 거의가 조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키네틱 아트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의 근원(주로 바람, 자력, 그리고 관객 자신)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미래주의와 구축주의에서 유래한 계보이다. 또 하나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작품 제작에 있어서 정신을 중요시하는 방향이다. 여기에서 정신이라 함은 동작 중인 순수한 형태를 창조하려는 욕망, 또는 풍자나 일시적인 기분을 표현하려는 욕망을 뜻하는데, 때로는 넌센스를 의미하는 수도 있다.

1960년대는 키네틱 아트의 황금시대였다. 스톡홀름의 근대 미술관에서 개최된 <예술에 있어서 움직임>전이 열린 것도 1961년이었는데, 그것은 키네틱 아트의 '황금의 60년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시회였다. 키네틱 아트라는 말이 미술계에서 일종의 공용어가 되었던 것도 이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키네틱 아트는 급속히 쇠퇴한다. 1960년대의 빛, 움직임, 소리로 대표되던 키네틱 아트의 미학적 요소에 의한 구성 대신에 물, 안개, 연기, 불, 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종의 생태학적 방법론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등의 첨단 기술로 접근해 가는 미술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모에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계장치의 운동에 역점을 두었던 키네틱 아트가 1960년까지로 종말을 고하고, 기계의 운동 자체보다는 그 영향에 의한 여러 가지 효과와 결과에 주안점을 두는 키네틱 아트로 옮겨가는 것이다.[40]

---

40) 월간미술, 「세계미술 용어사전」(서울: 월간미술, 2007),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법)

- 안내물이나 리플렛을 통해 사전정보 수집

전시실 또는 안내소에 준비된 안내 물과 리플렛을 읽어보고 작품 감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전시 도록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전체 작품을 돌아본 후 관심작품은 집중감상

작품 관람 시, 안내 동성을 따라 모든 작품을 제대로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돌아본 후 관심 있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

작품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작품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으로 관람하며, 작품명제표 등을 참고하며 감상한다. 작품에 관한 의문사항은 작품관리원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듣는 것도 좋다.

-감상 후 느낌 정리하기

관람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감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단체로 방문하였다면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람시각을 교환해 보는 것도 좋다.

(전시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 휴대전화나 호출기는 진동으로 바꾼다.
- 음식물을 휴대하지 않는다.
- 떠들거나 뛰는 행위는 삼간다.
- 사진촬영은 삼가는 것이 예의이나 꼭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미술관측 또는 작가의 사전허락 하게 촬영한다.[41]

<비평 및 감상활동>

작품 감상 후 각자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다. 조형적 특징은 어떠한지, 직접 참여한 작품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에 대한 감상 내용을 기록하고,

41) blog.naver.com/gslee2688/140167234346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 제작기법 중 특히 인상 깊은 기법이나 조형, 문양에 대하여 감상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적절한 발문은 키네틱 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상지 작성이 끝나면 발표하는 시간을 갖으며 감상 활동을 마무리 한다.

(6) 지도상의 유의점

☞ 예시 작품 감상 시에는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해당 학년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직관적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지양한다.

☞ 미술관 감상 수업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7) 평가

<문제>

: 전통적인 조형예술품과 키네틱 아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키네틱 아트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인가?

4. 교수·학습 과정안

가.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 '마르셀 뒤샹'

<표 6> 교수·학습 과정안 1

대영역	감상	중영역	현대미술감상

단원명	마르셀 뒤샹의 ‘샘’	차시	1/3
학습목표	°‘마르셀 뒤샹’의 여러 작품을 감상하고 ‘레디메이드’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레디메이드’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필수학습요소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기르기		
수업준비물	교사	ppt, 참고작품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인사 및 출석점검		
	◎동기유발	●마르셀 뒤샹의 ‘샘’ 작품 제시 후 생각유도 하기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나요?	●작품을 보고 느끼는 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소변기에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ppt 자료,참고작품1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내용 확인 ○학습목표 확인	●학습내용 확인 ○멀티미디어 자료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전개 (30분)		●수업 진행과정 설명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레디메이드라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업 진행과정 듣기	°ppt 자료, 참고작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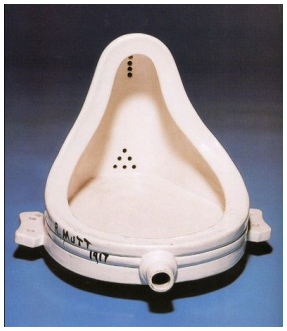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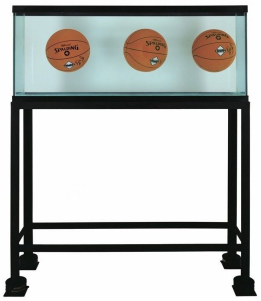
		그 후 레디메이드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한다.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에 얽힌 일화 설명 ○리처드 무트 사건(The Richard Mutt Case) 1915년 이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던 마르셀 뒤샹은.....(생략).....‘점잖지 못한’ 물건의 전시를 거부했다. ○작품 보면서 발문하기 -자, 이 작품에 얽힌 일화를 듣고 이 작품을 보니 이제 이 작품의 의미가 조금 파악이 되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고 무엇을 느꼈나요? ●레디메이드의 개념설명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을 의미하나 모던아트에서는 오브제의 장르 중 하나이다.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최초의 목적을 떠나 별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설명되는 일화 듣기 ○제시된 참고작품을 감상하며 듣는다. -네. -작품에 얽힌 일화를 듣고 나니 작가의 발상의 전환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과 같이 원래 있던 물건에 작가의 정신을 넣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화한 것을 레디메이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디메이드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몇 가지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
		○작품2 -이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나요? -이 작품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자전거 바퀴’입니다. -아무런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의자와 자전거 바퀴가 만나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정교한 바큇살과 둥글고 단단한 바퀴테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은 결코 창작품에 뒤지지 안항요. 진열된 의자 위에 거꾸로 세워진 자전거 바퀴의 조형미는 기성품과 조각품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뒤샹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자유롭게 발표 - 의자와 자전거 바퀴로 만들어 졌습니다. - 의자와 바퀴가 만났을 때. -자전거 바퀴를 업은 의자.	°참고작품2 °미술 감상을 할 때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작품3 -이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나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	○자유롭게 발표 -어항과 농구공이요. -어항에 농구공이	°참고작품3

		일까요? -이 작품은 제프쿤스의 1985년작 <세 개 공의 완전한 평형탱크>라는 작품입니다. 제프쿤스는 1980년대부터 농구공, 청소기 같은 레디메이드를 있는 그대로 차용하여 물신숭배 사상을 드러냈는데요. 일상적 사물이 미술관이라는 예술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새로운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쿤스는 뒤샹과 워홀의 후예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제 레디메이드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되었나요?	빠진 날이요. -작은 우주요. -네.	
	◎발표	**●레디 메이드의 개념에 따라 직접 작품활동 해보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장 자신 있고 잘 된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발표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작품 활동하기** **○발표하기** -연필, 이 작품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다음 날 학교 갈 준비를 도와 주셨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필을 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떠올	°활동지

		-네,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라 이 작품에 사랑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정리 (1 0 분)	◎형성 평가 ◎차시 예고 ◎주변 정리	-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차시예고를 하고 주변 정리 지도하기 -다음 수업은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과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홀의 작품 비교 감상이 있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게 주변 정돈을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인사하기	°ppt 자료

<표 7> 교수·학습 과정안 1의 참고작품

<그림 1> 마르셀 뒤샹 ‘샘’  <출처> 포털 사이트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그림 2>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출처> 포털 사이트 검색 http://blog.naver.com/4urhaus?Redirect=Log&l...
<그림 3> 제프쿤스 ‘세 개 공의 완전한 평형 탱크’  <출처> 포털 사이트 검색 http://parisart.tistory.com/40?srchid=IIMkgIKq100	

<표 8> 교수·학습 과정안 1의 활동지

▪ 현대미술 감상

◦ 마르셀 뒤샹의 '샘'을 보고 느낀점을 기록해 보세요.

◦ 레디메이드란 무엇인가요?

◦ 레디메이드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해 보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백남준과 앤디워홀)

<표 7> 교수·학습 과정안 2

대영역	감상	중영역	현대미술감상
단원명	백남준과 앤디워홀	차시	2/3
학습목표	°비디오아트와 팝아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작품 감상을 통하여 미술품에 내재된 사회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을 공감,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필수학습요소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수업준비물	교사	ppt, 참고작품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인사 및 출석점검** **●비디오 아트와 팝아트 참고 작품 제시**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나요? **●학습내용 확인** **○학습목표 확인**	**●작품을 보고 느끼는 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왼쪽 작품은 부처님이 TV를 보고 있어요. - 오른쪽 작품은 색감이 참 예뻐요. **●학습내용 확인** **○멀티미디어 자료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ppt 자료,참고작품1, 2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30		**●수업 진행과정 설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수업 진행과정 듣기**	°ppt 자료, 참고작품1 2

분)		**아트작품과 앤디워홀 작가의 팝아트 작품을 비교 감상한다.** -오늘은 백남준과 앤디워홀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감상 수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비디오 아트와 팝아트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두 작가는 동시대에 활동하던 작가로써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작가입니다. 다음 작품들을 보고 문화, 역사, 종교, 환경 등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감상을 통하여 알아봅시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를 다양한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비디오아트와 팝아트 **○작품3, 4** -비디와 아트와 팝아트란 무엇일까요?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로 조형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의 예술입니다.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로 작품을 하는 예술인 것 같고, 팝 아트는 모르겠어요. ○활동지에 적어가며 설명 듣기	°참고작품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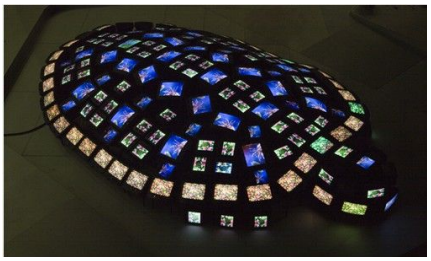
		팝아트는 전통적인 예술 개념의 타파를 시도하는 전위적인 미술 운동으로 광고, 디자인, 만화, 사진, 텔레비전 영상 따위를 그대로 그림의 주제로 삼는 현대 미술의 양식 중 하나입니다. **●작품 설명** **○작품1** < TV부처> 'TV부처'는 68년 백남준이 미국 뉴욕의 보니노화랑에서 가진 네번째 개인전에 처음으로 출품되었다.....(생략).....카메라가 부처를 비치는 순간 부처의 이미지는 대지 속의 조그만 눈처럼 보인다. **○작품2** <마를린 먼로1967> 워홀의 작품세계는 대부분 '미국의 물질문화'와 연관되어 있다...(생략)...또한 사고와 죽음의 이미지도 그려졌다. **○작품 보면서 발문하기** -자,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작품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졌나요? -어떤 생각이 들고 무엇을 느꼈나요?	○활동지에 기입하며 작품 설명 듣기 **○자유롭게 발표** - 네. 이제야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 첫 번째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미술 감상을 할 때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한 공간에 존재하는 듯 한 깊은 명상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같은 그림의 반복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현대의 한 자화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백남준과 앤디워홀의 작품에 드러나는 문화의 다양성 -다음으로 제시되는 두 작품을 보고 어떤 정서가 담겨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왼쪽은 높은 탑이 쌓아져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볼 수 있게 해 놓아서 보기 편하고 왠지 우리나라 전통탑을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코카콜라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게 왠지 기계적으로 보여요.	
		○작품5, 6 -네 참 좋은 감상평이었습니다. 왼쪽은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전통 탑 형식을 모델로 삼아 제작하였고, 개천절을 상징하기 위해		°참고작품5,6

		1003대의 모니터를 6단 원형으로 쌓아 올려 거대한 비디오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한민족의 예술적, 기술적 신기원을 이룩하려는 염원을 담고자 했다고 하네요. 오른쪽은 앤디워홀의 '1962코카콜라'라는 작품입니다. 112개의 코카콜라 병을 가로세로로 반복하여 대량 생산품의 기계적 이미지를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병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물체로 존재하도록 조금씩 다르게 그렸다고 하네요.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지요.		
	◎활동지 정리	**●활동지 정리하기**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동지에 정리하여 기입해 봅시다.	**○활동지에 정리하여 기입하기**	°활동지
정리 (10분)	◎형성 평가 ◎차시 예고	-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차시예고를 하고 주변 정리 지도하기 -다음 수업은 미술관 감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ppt 자료

	◎주변 정리	상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게 주변 정돈을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인사하기	

<표 10> 교수·학습 과정안 2의 참고작품

<그림 4> 「TV부처」 백남준 <출처> http://cafe.daum.net/towatei	<그림 5> 「1962마를린 먼로」앤디워홀 <출처>blog.daum.net/yelti/1367...
<그림 6> 「거북이」백남준  <출처> http://blog.naver.com/jm_mail?Redirect=Log&...	<그림 7 >「행복한 눈물」로이리히텐슈타인 <출처> http://cafe.daum.net/iwin77
<그림 8> 「다다익선」백남준 <출처> http://blog.naver.com/jm_mail?Redirect=Log&...	<그림 9> 「1962코카콜라」엔디워홀 <출처>blog.daum.net/yelti/1367...

<표 11> 교수·학습 과정안 2의 활동지

▪ 백남준과 앤디워홀 ◦ 비디오 아트란? ◦ 팝 아트란? ◦ 제시된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가며 감상해 보세요.

다. 미술관에서의 감상지도 (키네틱 아트)

<표 12> 교수·학습 과정안 3

대영역	감상		중영역	현대미술감상
단원명	미술관 감상		차시	3/3
학습목표	° 키네틱 아트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술관에서의 애티켓을 익히고 설명할 있다.			
필수학습요소	미술관에서 감상할 때에 주의사항 숙지하기			
수업준비물	교사	ppt 자료, 동영상, 유인물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인사 및 출석점검** **●키네틱 아트에 대한 동영상 상영** **●학습내용 확인** **○학습목표 확인**	**●동영상 시청하기** **●학습내용 확인** **○멀티미디어 자료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ppt 자료, 동영상1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30분)		**●수업 진행과정 설명** **○키네틱 아트에 대해 설명 후 다음 주에 미술관 수업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킨다.** -키네틱 아트란 무엇일까요?	**●수업 진행과정 듣기**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이에요. 무슨 예술인가요?	°ppt 자료

		-네.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시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옵 아트와 달리,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인데, 작품은 거의 조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이 바로 키네틱 아트 작품입니다.		
		○키네틱 아트의 특징은? -그럼 키네틱 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 **○활동지에 적어가며 시청하기**	°동영상
		○동영상 내용 정리 -모두 잘 시청하였나요. 키네틱 아트가 움직이는데 방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발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관객이 작품을 움직여 외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키네틱 아트에 대해 잘 이해되었나요?	-네	
	◎활동지 정리	**●미술관 감상수업** **○미술관 감상 수업 시 지켜야할 주의사항** -다음 주는 미술관 감상 수업이 있습니다. 미술관 수업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유념하기 바랍니다. ○미술관 감상 수업 시 주의 사항 유인물 배포		°ppt 자료 °유인물
정리 (10분)	◎형성 평가	-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ppt 자료
	◎차시 예고	●차시예고를 하고 주변 정리 지도하기 -다음 수업은 미술관에서 키네틱 아트 감상 수업이 있습니다.	○인사하기	
	◎주변 정리	-모두 간단하게 주변 정돈을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표 13 > 교수·학습 과정안 3의 참고 동영상

<출처>MBC (www.imnews.com)
'그림이 움직여요.' 키네틱아트의 매력

<그림 10> 동영상 캡쳐1

<그림 11> 동영상 캡쳐2

<그림 12> 동영상 캡쳐3

<그림 13> 동영상 캡쳐4

<출처>http://www.iblug.com/p/artbug/cn=FP132DF7FN0006399
키네틱 아트를 아시나요?

<그림 14> 동영상 캡쳐1

<그림 15> 동영상 캡쳐2

<그림 16> 동영상 캡쳐3

<그림 17> 동영상 캡쳐4

<표 14> 교수·학습 과정안 3의 유인물

◎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 안내물이나 리플렛을 통해 사전정보 수집
  전시실 또는 안내소에 준비된 안내 물과 리플렛을 읽어보고 작품 감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전체 작품을 둘아본 후 관심작품은 집중감상
  전체적으로 둘아본 후 관심 있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
  작품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작품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으로 관람하며, 작품명제표 등을 참고하며 감상한다.
- 감상 후 느낌 정리하기
  관람을 마치고 돌아갈 때 감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단체로 방문하였다면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람시각을 교환해 보는 것도 좋다.

◎전시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 휴대전화나 호출기는 진동으로 바꾼다.
- 음식물을 휴대하지 않는다.
- 떠들거나 뛰는 행위는 삼간다.
- 사진촬영은 삼가는 것이 예의이나 꼭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미술관측 또는 작가의 사전허락 하에 촬영한다.

제5절 수업 결과 예측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미술 작품의 효과적인 감상을 위해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중 감상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수업 모형을 세우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아래에서는 수업계획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이 끝나고 난 뒤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각 차시에 해당하는 현대미술 감상 영역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품의 참고도판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있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반응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문을 하는 것이 좋다.

수업 도입에서는 그날 작품 감상할 영역의 작품들을 아무 설명 없이 제시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품에 대하여 발표하고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체학습으로써 작품 감상이 끝나면, 조별 토론이나 각자 감상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여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감상활동지 작성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 전체학습으로 돌아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평가는 감상활동지와 수업시간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감상평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불어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르셀 뒤샹은 전통미술에서 현대미술로의 전환에 있어 큰 역할을 한 작가이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은 그저 난해하고 어렵기만 하던 현대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레디메이드의 의미를 알고 직접 작품 활동을 해 봄으로써 레디메이드라는 기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동시대의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작가의 작품에 반영된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품은 같은 주제라도 어떤 작가가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가 성장하는 데에 문화, 역사, 종교 등이 큰 역할로 작용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실물과 관객과의 직접 교류로 이루어지는 미술관 감상활동을 통하여 전통적인 학교 교육제도나 문화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키네틱 아트의 특성상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미술관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미술관 감상 수업을 위한 미술관 내에서의 다양한 에티켓들을 배우는 것은 문화인으로써의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미술은 인간의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매개로 하여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킴과 더불어 미술도 함께 발전해 왔다.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에 공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그 시대의 문제점과 가치관, 감정 등을 우리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학습자가 현대미술의 이해를 통하여 동시대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대미술 감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본 지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흐름과 형성배경, 미술 감상의 개념과 역할 등을 이해하고 현대미술 감상 지도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 감상영역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마르셀 뒤샹의 작품 중 하나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수업, 백남준과 엔디워홀의 작품을 비교하여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 별로 차이점을 이해하는 수업, 미술관에서의 감상 수업을 위해 미술관에서의 올바른 감상태도에 대해 배우고 키네틱 아트의 개념을 파악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수업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측하였다.

첫째,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감상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학습과정에 부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기위해 뒤샹의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하고, 「샘」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기까지의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현대미술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현대미술 감상을 통하여 시각문화에 대한 분별력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미술이 접목되는 경우를 자주 마주친다. 건축물, 길거리 벽화, 광고매체, 산업상품 등 그런데 그것이 현대미술에서 응용된 것 인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미술을 접하면 접할수록 현대미술에 대한 분별력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문화적 경쟁력이 증진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통 문화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높일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인종과 문화가 다른 백남준과 앤디워홀의 작품을 선정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하고 비교해 보았다. 작가는 문화, 역사, 종교, 환경 등에 따른 영향으로 그 만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구성해 낸다. 그러므로 두 작가의 작품을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 감상하여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를 다양한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넷째, 감상의 태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의견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주체적인 감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의 지도 방법에서 미술관 수업에 대해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더 이상 감상 수업이 제한된 공간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이 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현대미술의 장르 중 키네틱 아트를 미술관 수업에 연계시켰고, 그것을 위한 선수학습을 제안하였다. 키네틱 아트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또한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미술이다. 쉽게 말해 '움직이는 조각'으로 보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관람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운동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나뉜다. 키네틱 아트 작품 완성을 위해서 관객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키네틱 아트 작품 감상은 직접 오감을 사용하여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감상을 도울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묘미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현대 미술 감상에 있어서 미술사적 흐름, 작품 비교 감상, 미술관 감상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작품에 접근하는 감상자의 관점에서 현대 미술이라는 장르에 대해 흥미를 갖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 적용 시에는 미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실험적 감상 방법의 일환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법론 자체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1. 김청자 외, 「교육심리학」, (동문사, 2004).
2. 김형숙, 「미술교육, 사회와 만나다」, (교육과학사, 2010).
3. 니코스 스탠고스, 「개념미술」, 김보라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8).
4. 니코스 스탠고스, 「현대미술의 개념」, 성완경 등, (서울: 문예출판사, 2000).
5. 다니엘 마르조나 지음, 「개념미술」, 김보라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8).
6. 로웬펠드,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역, (미진사, 1993).
7. 루시-스미드,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 (서울: 미진사, 1995).
8.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주)시공사·시공아트, 2003).
9. 세계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월간미술, 1999)
10. 이은적 등,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4).
11. 임정기 등,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6).
12.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13. 하용석, 「현대미술이 난해한 까닭은」, (도서출판미공, 2005).

학위논문

1. 김승현,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박은현, "제7차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연계성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박현의,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논문, 2011).
4. 윤병인, "교과서분석을 통한 미술과 감상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5. 최동령,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사청구 논문,

2005).
6. 하란희,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감상영역 비교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학술지 논문

1. 류지영, “현대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연구” 『미술교육연구 논총』, 21, No.- (2007)

사이트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 www.mest.go.kr/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3], www.mest.go.kr/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3], www.mest.go.kr/
4.네이버지식백과사전terms.naver.com/entry.nhn?cid=170&docId=259920&mobile&categoryId=170
5.두산백과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222&mobile&categoryId=200000939
6. 문화예술연구단체 현대사진포럼, cafe.daum.net/mpo/5P21/3252
7. blog.naver.com/gslee2688/140167234346